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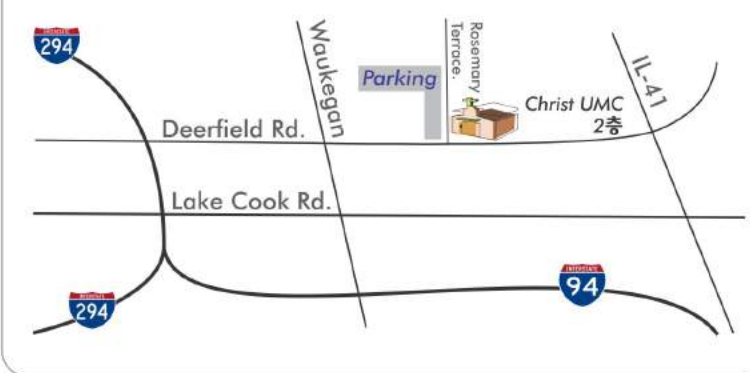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결실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섬기는 사람이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기에 감사라” 에스겔 37:19

세상은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교독문 25번 - 시편 47편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기도 / 장영현 전도사

찬 송 / 287장 - 예수 앞에 나오면 / 2, 1절
(통일찬송 205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현신과 나눔

찬 송 / 527장 - 길길을 밝히 보이시니 (통일찬송 313장)

찬 송 / 370장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찬송 455장)

봉 헌 / 유동숙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369장 -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통일찬송 487장)

성경말씀 / 요나 4:1-5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반응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앙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앙 예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예배소서 6:10-20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사실은 내 이름, 내 명성, 내가 칭찬을 받는 곳에 모두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울며 회개합니다. “당신이 나를 파면했다면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 불의한 종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나요?

기억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파면 시키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더 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린 다윗의 이 기도를 지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으소서. 결코 다시 지뢰밭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의 마음을 부으소서!”

믿음이 무엇인가? 내 한계를 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81:91 찬양

“건너가서도 이리저리 응응응 응응응 응응응 응응응”



저는 요즘 <왕의재정 1> 리커버 에디션을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쿵 했습니다.

50 억의 빚을 지고 망한 저자 (실화)

그러나 그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망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물 없어서 고생하는 아프리카에 우물도 몇 개 파주고, 교회도 몇 개나 지었는데 현금도 많이 냈는데, 왜 제가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함을 배웠기에,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6 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 눅 16:1,2>

종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다 써버리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파면하는 장면.

그녀는 그때 깨닫습니다. 좋은 일을 해왔지만, 자신의 뜻대로 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칭찬 받는 것을 즐겼던 자신의 동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1.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성도의 사명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선교와 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3. 합심기도 점심친교 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오후1:30)
4. 사역훈련 12 주간의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 됩니다. (1:45 p.m. 컨퍼런스 룸)
5.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6. 토요 새벽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7.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니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8.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매 주일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10월의 사역 - Post Covid-19를 위한 기도모임(10월)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7-23)

선교 주간(24-30)

선교 주일(31)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훈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임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예배처소 이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10/10	10/17	10/24	10/31
주일예배기도	최선운집사	장영현전도사	구은강집사	구민집사
	10/10	10/17	10/24	10/31
주일헌금위원	박진성집사/유동숙집사	최내권집사/오정은집사		
	10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 요나 3:5-11**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 하셨다.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 죄를 밝히 보여 준다. 또한 형제, 자매가 '이중직 거울'이 된다. 믿음의 본이 되는 그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회개운동의 문제는 일회적인 사건에 머물렀던 데에 있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회개운동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멸망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때로는 금식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려 놓아야 한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 결국,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를 의지하며 매일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자. 이웃과 세계를 품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만한 회개, 끊임없이 계속되는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반응 / 요나 4:1-5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분노로 맹렬히 불탔다.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40 일을 채우려했다.

이는 편견과 하나님의 대한 지식의 결핍 때문이었다.

질문하는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는 요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감정은 영성에 해악

하나님의 용서와 요나의 반응 / 요나 4:1-5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가 많이 있다. 요나도 그러했다.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 겨우 하루만 전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이 회개하며 악행에서 떠났으니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기록한다. 원문 "싫어하다"는 무언가를 "조각조각 내다" 또는 "갈기갈기 찢다"는 뜻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 근심, 시기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성내다"는 "불에 탄다"는 뜻이다. 불이 맹렬히 타듯이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 자신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심판을 피한다면, 누구보다 더 기뻐해야 하나, 요나의 마음은 반대였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한다. 분노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기도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기도했다. 아마도 이렇게 한탄했을 것이다.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이 사역을 얹히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인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 뵙니다. 아! 그런 꼴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나의 터무니없는 기도는 무엇보다 그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다. 그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귀한 피조물이 아니라 단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할 존재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익에 맞춰 강성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다. 즉,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잘못된 선민사상이었다. 둘째,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심을 몰랐다. 요나는 부끄러울 만큼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분노에 찬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이나?"고 물으신다.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요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니느웨 성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40 일이 되기까지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요나는 편견과 독단에 빠져 이웃도, 하나님도 멀리 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를 버렸어야 했다. 이런 감정들은 영혼에 해악을 끼치며, 영성을 갈아먹는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기쁨을 보면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길이 시작된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편견에 기인한 분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용납하며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돼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